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07. 12	07. 19	07. 26
대 표 기 도	정환영 형제	이예준 형제	이상호 목사
성 경 봉 독	정환영 형제	이예준 형제	이상호 목사

교회소식

7월 축복 인사 : 일어나서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7월은 “나눔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 집중 기도하는 달입니다.
4. 고국 방문 - 오서진 자매(7월 6일)
5. 나눔의 시간 - 문희, Andreas Mäder 성도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우동정

생일	조영재 형제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주일학교	
감사헌금	
합계(Euro)	
온라인헌금(6월)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 2:10)”



교회창립 | 1983년 10월 23일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Jin Soon Chung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홈페이지 :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입례찬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 Gemeindelied	-----	다같이
기도 Gebet		이상호 목사
성경봉독 Predigttext	나 1 : 9 - 15(구p1299) (Nahum 1:9~15)	최상우 형제
특별찬양 Sonderlied		최상우 형제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가족환영	이상호 목사
헌금기도 Kollektgebet	-----	이상호 목사
설교 Predigt	악은 끝나고, 은혜는 남는다	이상호 목사
성찬예식 Abendmahl	살아계신 주, 눅22:19~20	담임목사
*파송찬양Abschlusslied	주와 같이 길 가는 것(1,3절)	다같이
*축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송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섬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섬김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소서
2.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 청년들의 가치관 확립을 위해(진학, 진로, 결혼)
3.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황희순 집사님)
4.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되도록

악은 끝나고, 은혜는 남는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가?", "왜 악은 그대로 두시는가?", "왜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훔 시대 유다 백성들도 세계 최강국 앗수르의 압제 앞에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 사람은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결말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 하나님은 악의 끝을 선언하신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 "온전히 멸하시리니"(9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앗수르가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권세는 없습니다. 성도는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2.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12절)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눈물과 탄식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그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을 주셨습니다.

3.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신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15절)은 하나님의 승리와 회복을 선포하는 자를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처럼 두려움과 절망을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소망과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입니다.

악에는 끝이 있고, 고난과 눈물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를 끝내시고 은혜를 남기셨으며, 사망을 끝내시고 생명을 남기셨고, 절망을 끝내시고 소망을 남기셨습니다. "악은 끝나고 은혜는 남는다."

이 믿음을 붙들고 한 주간도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 모임을 위한 질문

1. 하나님은 왜 악을 즉시 없애지 않으실까요?
2. 내 삶에서 끝내야 할 것과 계속 남아야 할 은혜는 무엇인가요?